



미디어 문화사의 주체, 대중 찾기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생활의 실천>에 관한 소고를 중심으로*

김지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김 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논문은 최근 미디어를 통해 역사 속 대중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미디어문화사 작업이 여전히 '위로부터의 역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역사학자이자 문화이론가인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작업이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떤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본 논문은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 텍스트(언어)와 행위(몸)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무화시키는 대중들의 실천성에 주목했던 세르토의 작업을 통해 대중들이 어떻게 역사의 타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하고자 했다. 텍스트(언어) 속에서 다층적인 행위의 공간을, 행위(몸) 속에서 다면적인 언어적 수사를 발견해 내는 세르토의 작업은 대중들이 이들 경계를 서성이고 침투하는 실천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배제해 온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세한 작업이다. 이상 세르토의 작업은 타자들의 역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나아가 이들을 어떻게 역사의 주체로 위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온 미디어 문화사들에게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일깨움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미디어 문화사, 세르토, 행위의 텍스트성, 텍스트의 행위성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재구성한 것입니다.

** jiyeonkim6@naver.com 주저자

*** kyunkim@sogang.ac.kr

1. 들어가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최근까지 커뮤니케이션 역사연구의 영역에서 미디어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서적, 논문들이 적지 않았다. 신문, 잡지, 광고, 소설, 영화 등 식민지 근대 미디어 문화사 연구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등 거시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데 치중해 온 나머지 그 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민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들 문화사 연구들은 기존의 사료를 새롭게, 풍부하게, 뒤집어 읽어내는 문화사적 시각에서 쓰여진 것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민중문화 사료를 발굴해내는 데 그치는 것, 소위 “소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상길, 2005, 140쪽)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후기 식민주의 지형에서 지배집단의 중심 언어 속 감춰진 타자들의 목소리를 발굴해 내는 것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사료 해석의 방법에 달려있을 것이다.

정치사-사회사-사회문화사-문화사로 전환되어 온 역사학의 패러다임 속에서(임상우, 1997) 문화사는 평범한 사람들, 대중들이 역사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뢰펜(Dülmen, 2000/2001)은 “(역사적)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는 생산자로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역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추동자로서 인간을 받아들인다”(p. 68)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슬룸봄(Schlumbohm, 1998/2001)은 과거 평범한 사람들을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사가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말한다.

버크(Burke, 2004/2005)는 문화사란 역사 속 인간들 중 특별히 아래(대중)로부터의 역사를 강조하는 관점임을 강조하면서 문화사가라면 역사적 텍스트가 시대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역사적 표상을 “구성하거나 생산한다”(p. 129)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지적들을 종합하면,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대중(민중)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고 회의하는 것을 통해 종전의 역사를 뒤집어보는 전복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디어사에서 문화사적 시각은 얼마나 반영되어 왔는가? 이상길(2008)에 따르면 미디어사란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역사서술”(6쪽)이며 문화사적으로 근대를 인식하는 미디어 문화사적 작업 역시 역사 구성의 주체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통해 “권력행사의 과정과 효과를 재인식”(41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민지 근대에서 타자로 배제되어 온 대중들의 삶을 복원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근대를 읽어내고자 기획된 미디어 문화사 연구들 역시 이들 타자들이 처했던 당대의 구조에 방점을 두는 사회문화사적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유선영·박용규·이상길, 2007). 결과적으로 거시적 구조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사적 시각에서 미디어는 여전히 대중들을 수탈하기 위한 제국과 자본의 도구이며, 아울러 위로부터 아래로의 시각을 반영하는 지배적 담론의 장치로 간주되어 왔다(이상길, 2008).

물론 유선영 등(2007)의 지적처럼 주체구성의 문제에 대한 문화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가진 맹점, 텍스트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에서 사회문화사적 시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작업이 '아래(민중)로부터의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을 다루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은 역사 속 타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근대사를 기술하는 미디어 문화사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대표적으로 식민지 근대 신여성 연구들을 통해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김옥영, 2003; 김영화, 2012; 마정미·강태완, 2005; 서범석·원용진·강태완·마정미, 2004; 서범석·원용진·정과리·강태완·마정미·김동식·이병주, 2006; 서지영, 2008; 윤영옥, 2005; 이경, 2004; 이명선, 2003; 이병주·마정미, 2006; 이윤미, 2004; 이은경, 2004; 이혜진, 2014; 임우경, 2004; 정지영, 2006). 이들 연구에서 신여성은 주로 식민주의, 가부장성, 제국주의라는 복수적인 지배적 담론에 의해 끊임없이 이간질당하고 배제되어 온 근대의 타자로 묘사된다.

바바(Bhabha), 스피박(Spivak), 벤야민(Benjamin) 등의 논의를 통해 이들이 구현하는 차이의 공간에 주목한 연구들 역시 이들 여성들이 미디어 텍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료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벤야민에 관한 논의를 통해 경성에서 신여성이 '혼부라를 한다'(=산책한다)는 것의 의미를 규명하려 한 서지영(2010, 2013) 연구 등의 결론 역시 이들 산책자들의 산보행위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과 담론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논의는 신여성들이 어떻게 지배집단의 장치인 미디어의 거대서사에 개입하여 자신들만의 텍스트 공간들을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여성들과 같은 타자들의 흔적을 문학 서사 혹은 가부장적 담론을 넘어 이들의 역사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미디어 문화사가 대중들의 역사로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역사적 텍스트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싶다. 누가 미디어를 생산하고 유포했는가, 즉 미디어를 구성한 펜이 누구 손에 들려있었는가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시각에서는 미디어의 구성에서 물리적으로 배제된 듯 보이는 대중이 미디어 텍스트 구성에 가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의 근대를 새로이 읽어보는 방법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온 후기식민주의(post-colonialism) 연구들이 주로 역사 속 타자로서의 대중이라는 인식론에 머무는 동안 대중들은 당시 지배계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들의 선입견에 의해 또 한번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중의 타자성을 갖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역사속 타자로서 간주되어 온 대중들이 역사적 텍스트에 개입한 흔적이자 그들의 역사로써 미디어 텍스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즉, 미디어 텍스트에서 어떻게 타자로서 간주되어 온 대중들은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그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디어 문화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틀로 온전히 다뤄지지 못해온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1980/1984)의 <일상생활의 실천(Practice of everyday life)>에 주목했다.

세르토는 역사가들의 오래된 이분법적 강박관념이 역사를 “제도의 서사(epic of institution)”(Certeau, 1973/1986, p. 203)로 생산해낸다고 말하면서 문화사가라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과학과 허구, 주체와 객체, 담론과 작은 이야기와 같이 역사를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인식하는 강박관념에서 역사가들이 자유로워질 때 연대기라는 제도의 서사 속에서 배제되어 온 대중들의 찰나(刹那)를 포착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타자로서 배제되어 온 대중들의 공간, ‘Heterologies’에 대한 세르토의 주장이 인식론적 수준을 넘어 이론적, 방법론적 수준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실천(Practice of everyday life)>(1980/1984)이다.

세르토의 작업은 식민과 탈식민, 남성과 여성, 민족과 제국과 같은 이분법적 경계에서 타자화된 대상들에 관심을 갖는 것에 그쳐왔던 문화사 연구에서 중심성과 주변성이라는 이분법적 경계 자체를 허물어버리고자 했던 급진적 작업이라는 점에 그 정치적 의의가 있다. 또한 그 경계 허물기를 위해 언어(텍스트)와 몸(실천)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중들의 실천에 대한 이론이자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미디어라는 텍스트와 텍스트 뒤에 감춰진 구체적 행위자라는 별개 항(실은 별개 항처럼 보여지고 간주되어 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Poster, 1997/2006), 즉 궁극적으로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라는 미디어 문화사의 오랜 고민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일상생활의 실천 I, II>에서 세르토(1980/1984; 1990/1998)는 미디어의 담론은 분명 지배 계층의 권력적 이해를 위한 지배적 담론이지만, 이들 담론들이야말로 타자들의 역사를 발굴하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오히려 타자들을 부정하는 미디어의 담론은 이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인데(Certeau & Giard &

Mayol, 1990/1998), 왜냐하면 대중들을 타자화시키고 배제하는 담론은 역으로 타자들의 침투를 경계했던 일상적 장소가 어디였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미디어 담론을 읽어내는 대중들은 담론에 무력하게 순응하는 타자적 존재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의 담론을 “밀렵”(장세룡, 2016, 57쪽)적으로 읽어내고 전유함으로써 내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주체성을 가진 청취자들이다(Certeau & Giard & Mayol, 1990/1998). 세르토는 역사의 일관된 서사를 만들어내는 지배적 텍스트의 “접속성(conjunction)”이 아닌 균열되고 쪼개진 타자들의 텍스트가 갖는 브리콜라주적인 “이접성(disjunction)”에 관심을 기울인다(Certeau, 1973/1986, p. 205).

그 동안 미디어 역사학을 위시한 미디어학 분야에서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음직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세르토가 피스크(Fiske, 1989/2002)와 같은 문화연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개되었고 신비주의 이론가라고 불려온 그의 작업에 대한 이해가 학계에서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세르토의 논의가 최근 들어 역사학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재조명 받고 관련 소책자가 출간되고 있는 정황은 환영할 만하다¹⁾. 그러나 이 역시 세르토의 작업이 갖는 개념적 의미들을 제시하는 정도에 치중하는 데 그치고 있고 세르토의 작업이 우리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미디어 문화사 연구에 어떤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지에 까지 아직 논의의 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론과 서사(이야기), 장소와 공간, 언어와 행위, 생산과 소비, 쓰기와 읽기, 지도와 여정 등 수많은 이항 대립적 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세르토의 작업을 설명하는 한마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간의 ‘경계 허물기’일 것이다. 언어 속에서 행위의 공간을 찾아내고, 행위의 공간에서 언어적 텍스트를 찾아내는 세르토의 작업은 무엇보다 이들 경계에서 서성이고 작동(operating)함으로써 이에 침투하는 타자이자 주체들의 저항적 실천을 발견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계의 경계짓기를 부정’했던 세르토의 작업은 그동안 타자로서 간주되어 온 대중들의 역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서 나아가 이들을 어떻게 역사의 주체로 위치 지울 것인가 고민해 온 미디어 문화사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특히 푸코(Foucault)의 담론(텍스트)과 부르디외(Bourdieu)의 실천(행위)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적인 이론적 성찰이

1)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 타자의 탐구로서의 글쓰기>(장세룡, 2003), <푸코와 세르토- 권력과 신비>(장세룡, 2005), <미셸 드 세르토: 일상 생활의 창조>(장세룡, 2016) 등이 있다.

어떻게 일상 속 행위와 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타자들의 문화사를 가능하게 하는지 ‘텍스트의 행위성’, ‘행위의 텍스트성’이라는 이론적, 방법론적 개념 제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은 식민성, 계몽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라는 다양한 주의와 주장들이 교차했던 식민지 근대에서 이들 다양한 주의와 주장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진술, 경계 짓기의 부정을 통해 살아남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던 식민지 근대의 타자이자 주체였던 ‘신여성’이 세르토의 논의를 대입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테헤숙(2004)의 말처럼 식민지 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차원의, 모순된, 잠정적 공간”(31쪽)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간질 당하며 분류된 다양한 여성 하위주체들이 그 나름의 역사 인식과 작인을 창출하려는 이중적 노력을 밝혀내는 접근을 취해야 할 것”(18쪽)이기 때문이다. 이들 신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텍스트와 그 속에 감춰진 행위의 공간은 무엇이며, 이들 텍스트와 행위의 공간들 속에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실천적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작업은 종이 위에 쓰여진 일차원적 텍스트 속에서 입체적인 타자들의 주체적 공간들을 되살리는 새로운 문화사적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의 주체, 대중의 발견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대변되는 근대의 역사는 늘 생산과 생산자의 역사였으며 소비와 소비자의 문체는 역사학에서 늘 주변부를 차지하곤 했다(McCracken, 1988/1996).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소비하는 역명의 대중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체라는 세르토의 주장은 ‘대량생산체제에서 소외된 대중’이라는 마르크스 지형의 인식론적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비판이론의 지형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1980/1984)은 역사 속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항상 소수자의 위치에 처해있던 대중(혹은 민중)들이 근대성과 식민성의 계기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역사구성의 주어, 즉 주체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 보여준 핵심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르토 역시 대중들이 근대화의 생산시스템에서 소외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역사 속에서 양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주변인이라는 소수자의 위치를 점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르토(1980/1984)는 근대화의 상업적이고 억압적인 기획에 의해 줄지에 피식민 주체가 되어버린 도심의 대중들이 “정복자들에 의해 강제로 부과된 법률 혹은 재현”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면서 역으로 이것들을 이용”(p.

32)하는 존재, 즉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전유, 재 전유하는 소비의 기술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배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순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상징해 온 종전의 입장들과 거리를 둔다. 오히려 그는 “소비는 집중적이고, 떠들썩한, 거대한 생산 (production)에 대응하여 분산되어있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산”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은 소비자라기보다 “이차생산자(secondary production)”(p. xii)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록 다수지만 사회의 지배적 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중들이 이들 지배 시스템에 침습하여 이를 전유하는 이차생산자, 즉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상생활의 실천>이라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르토가 주목하는 것은 대중들이 읽고, 말하고, 걸어 다니는 일상생활의 공간이며, 이들 공간 속 다양한 실천들이다. 일상의 전형성과 달리 세르토의 일상공간은 의례화되고 반복적이며 타성에 젖어있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지배자들의 합리적 이해타산이 반영된 전략적 계산에 맞서 저항하고 살아남기 위한 대중들의 유연한 게릴라적 전술이 펼쳐지는 역동적이며 다층적인 입체적 공간이다. 특히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중들이 지배적 권력에 (언어와 실천 전반을 통해)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세르토의 지적은 지배적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온 대중들이 어떻게 근대사회의 ‘타자’이면서도, 타자적 위치에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세르토의 작업은 지배 시스템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전유’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푸코(Foucault), 부르디외(Bourdieu)의 이론에 저항하는 이론적 ‘전유’의 기술이기도 하다.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을 비판하는 세르토의 일차적 비판은 이들의 작업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 국한된 사례를 일반화시킴으로써 텍스트와 행위의 지배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푸코의 작업은 19세기 교육, 감옥, 병원 등 특정한 근대적 장치에,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알제리 카빌리 지방이라는 특정 장소의 혼인전략에 국한된 연구이기에 이를 근 현대 사회 일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르토는 푸코와 부르디외의 이론이 생산적인 것이 되려면 이들의 작업은 결론이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의 사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들의 작업에 반문을 제기해보는 이론적 회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에서 왜 지배적 담론과 실천들을 벗어나는 대중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들은 배제되어 있는지 반문함으로써 대중들이 단지 역사의 타자로서 간주되는 것에 반박한다.

버크(2004/2005)는 세르토의 작업은 푸코의 ‘위로부터의 감시에 아래로부터의 반 감시’, 부르디외의 ‘무의식적 실천들에 의식적 실천들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적 주체들이 반드시 위로부터 감시 받고 무의식적인 사회적 구조 안에서 행동하는 피동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시에 반 감시, 의식에 무의식, 전략에 전술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항을 대비시킴으로써 지배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세르토 작업의 의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다.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적 성찰은 무엇보다 언어적 담론(discourse)과 비언어적인 실천, 아비투스(habitus)와 같은 개념적 대립항의 이분법적 경계 허물기를 통해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온 타자들의 공간을 발견하고 역으로 이들을 역사의 주체로 재인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푸코의 담론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배적 권력의 이중적인 잠금 장치로 간주되어 온 언어(담론)와 몸(실천)이라는 대립항을 지배와 저항이 공존하며 담론과 실천이 상호 개입하는 비 경계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르토의 작업에서 주체와 타자의 경계는 기성의 역사학의 인식처럼 선명한 것이 아니다.

감시와 반 감시, 의식과 무의식, 전략과 전술, 담론과 서사, 장소와 공간, 공간과 시간, 생산과 소비, 쓰기와 읽기, 지도와 여정, 구조와 행위 등 세르토의 일상생활의 실천에 등장하는 어휘들은 그동안 주로 지배와 저항에 관한 이분법적 도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세르토의 작업에 등장하는 이분법적 어휘들은 역설적으로 이들 간 '경계 허물기'를 위한 재료이다. 소비에서 생산을 찾아내고, 장소에서 공간을 찾아내며, 공간에서 시간을, 쓰여진 글에서 읽기를, 움직이는 몸의 궤적(trajectories) 속에서 언어적 수사(rhetoric)를 발견해 내는 세르토의 작업은 근대의 역사 속 타자로 간주되어 온 대중들이 어떻게 이들 경계에 서성이는 행위를 통해 역으로 그들을 배제해 온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전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지배적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해 온 우리의 근대 미디어 문화사기들에게 세르토의 작업이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대중과 미디어, 그리고 권력의 문제에서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재인식해야 하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세르토는 미디어가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들 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미디어 담론은 담론의 내용이 무엇인가보다 담론이 작동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Certeau, 1980/1984, p. 89-90) 지적한 세르토에게 미디어는 대중들의 창의적 읽기, 발화 등을 통해 전유되는 다면적 언어 공간이며, 나아가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미디어에 재현된 이미지가 전유되어 소비될 수 있는 다층적인 비언어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세르토(Certeau, 1980/1984)의 비유처럼 유리창 밖의 근대적 풍경이 선사하는 스펙터클에 비록 그 시선이 빼앗겨 있긴 하지만 근대의 대중들은 몸을 실은 열차의 움직임을 통해 그 스펙터클과 멀어지는 거리를 자각하는 존재, 즉 비판적 산책자이다. 그리고 이는 근대 미디어가 제

시하는 스펙터클의 허구성을 자각하면서도 이에 매혹되는 근대 미디어 독자의 시선과 닮아 있는 듯 보인다. 세르토의 논의대로라면 식민지 근대의 대중, 독자들은 미디어의 담론에서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미디어의 담론이 실천되는 매일 매일의 역사, 살아 숨쉬는 역사의 주체, 증인은 아닐까?

본 논문은 근대미디어의 대중들 중 각별히 신여성에 주목했다. 주지하다시피 신여성들은 근대 미디어 속 타자로서 배제된 존재들이면서도 담론 속 과잉되어 재현되어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김수진, 2009). 이는 근대의 미디어가 이들 여성들에게 과잉티콘적인 가부장적 시선이 작동하는 지배의 장소이자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저항의 역설적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대 미디어 속 신여성에 대한 논의들은 이들 여성들이 어떻게 미디어의 지배적 담론들에 의해 타자화 되었는지 다루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온 가운데 역사적 주체로서 이들 여성들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세르토의 이론적 작업들 특히 푸코와 부르디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일상 생활의 실천>(1980/1984)의 개념들을 통해 이들 신여성들이 어떻게 근대 미디어들 속에서 타자면서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여성>, <여자계>, <별건곤> 등 신여성 관련 잡지들, 다수의 신여성 서적들과 논문들을 검토하고 모자이크적으로 보이는 이들 미디어 텍스트들을 횡단하면서 그 경계를 서성이는 신여성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공간을 찾아내고자 했다.

3. 텍스트와 행위, 경계의 넘나듦

앞서 살펴보았듯이 푸코와 부르디외에 대한 세르토(1980/1984)의 비판에 대한 평가는 여태껏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을 아래에서 위로의 관점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데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상길(2014)은 푸코와 부르디외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은 "실천의 유동적이고 다층적이며 과정적인 성격을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 포착하려는 의지의 시선"(74쪽)이었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그의 지적은 우리가 세르토의 작업을 관점의 전복이라는 이론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전복할 수 있는가? 즉 방법론적 기술로써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은 푸코와 부르디외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이 텍스트와 행위, 언어와 실천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요컨대 어떻게 몸이 행하는 실천이 텍스트가 되고 어떻게 종이 위에 쓰여지는 텍스트가 몸을 통해 작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텍스트와 행위의 경계 넘기'야 말로 세르토(1980/1984)가 <일상 생활의 실천>을 위시한

작업들을 통해 강조한 핵심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상의 초점을 통해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쓰기 속의 읽기, 담론 속의 작은 이야기들, 인용 속 목소리, 지도 속의 궤도, 장소 속의 공간, 궁극적으로 텍스트 속 행위와 행위 속의 텍스트라는 대중들의 실천적 공간을 발견한 세르토의 작업이 우리의 미디어 문화사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세르토의 작업이 푸코와 부르디외의 작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배적 권력의 이중적인 잠금 장치로 간주되어 온 언어(담론)와 몸(실천)이라는 이분법적 대립항을 지배와 저항이 공존하며 텍스트와 행위가 상호 개입하는 상호텍스트적 공간으로 재규정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 푸코를 넘어: 텍스트의 행위성

표면상 푸코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은 위에서 아래로의 일 방향적인 권력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 있다. 세르토는 권력에 대한 푸코의 인식론적 편향성은 푸코가 병원, 감옥, 학교와 같은 합법화된 제도적 장소를 중심으로 권력의 개념을 논했고, 여기서 평범한 대중적 주체가 저항적 힘이 작동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푸코의 작업에 대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는 세르토의 지적처럼 즉 ‘누가 권력의 주인인가’ 를 둘러싼 주체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 푸코는 특정 대답에서 자신의 권력 개념을 통해 구조와 주체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주체가 저항할 자유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타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임상 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 〈담론의 질서〉,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 푸코의 연대기적 작업들 속에서 푸코의 주체는 담론이 만들어 내는 효과로 간주되어 오면서(허경, 2012) 주체란 지식, 권력,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생산되는 수동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정우, 1993). 광기, 성, 감옥, 병원과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스런 사실로서 자리 잡아 왔는지, 이를 통해 인간의 경험이 ‘주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보여주려고 했던 푸코의 작업에서 주체는 ‘사회적 제도, 담론 등의 구조적 장치에 갇힌 채 이를 실행하는 대리인과 같은 타자로 간주되어 왔다.

세르토(1980/1984) 역시 푸코의 작업에서 감옥, 학교, 병원과 같은 일부 제도에 의해 훈육되고 규율화 된 주체의 모습을 어떻게 근대 사회 주체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근대 사회의 기능을 이들 몇몇 지배적인 제도들의 작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지 세르토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에 산재하는 수많은 실천들을 파놉티콘으로 대체해 버리는”(이상길, 2014, 75쪽) 푸코의 시선에 세르토(Certeau, 1980/1984)는 이들 파놉

티콘적인 지배적 장치들 속에서 살아남은 “산재되어 있는 복수적 실천들”(p. 48)은 여전히 지배적 장치들의 지배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지배적 장치들의 일방적 승리에 종속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에게 푸코의 주장은 역사 연구의 종착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출발점(departure)”(p. 48)이었던 셈이다. 담론과 담론을 생산해낸 지배적인 장치들을 지칭하는 고정된 ‘장소(the place)’와 이를 전유하고 회피하는 대중들의 유동적인 거점들을 일컫는 ‘공간(space)’의 대조적인 제시는 세르토가 인식하는 타자들의 공간이 갖는 다층성과 유동성을 보여 주는 지점이다. 종교적,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서 타자화된 수녀들의 악령들림 사건(장세룡, 2005)을 다룬 <루튀의 마귀들림>(Certeau, 1973/2013)과 같은 세르토의 텍스트가 드러내듯이 담론은 근대적인 파놉티콘의 권력적 시선이 내재된 장소(the place)이지만²⁾, 동시에 이들 담론과 담론을 생산해낸 지배적인 장치들을 전유하고 회피하는 타자들의 공간(space)이다.

특히 세르토(1980/1984)가 주목한 읽기(reading), 작은 이야기(micro-stories), 목소리의 인용(quotation of voices)등의 층위는 바로 푸코의 제도적 담론이 배제하고 있지만 대중과 같은 타자들의 목소리가 발현될 수 있는 텍스트 공간이다. 물론 세르토가 푸코의 담론 개념을 비판한다고 해서 푸코의 작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르토 역시 근대화는 개인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배제된 다수의 소외된 주체들을 양산해낸다는 점에서 푸코와 인식을 함께 한다. 다만 세르토는 근대 도시의 상업적이고 억압적인 기획에 의해 줄지에 피식민 주체가 되어버린 도심의 대중들이란 정복자들에 의해 부과된 규율과 재현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라기보다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전유하는 저항적 기술을 터득해 온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푸코와 거리를 둔 것이다. 결국 세르토의 주장은 푸코의 작업을 “뒤집어보거나 잘라보는 작업”(p. 62)을 통해 담론 속에 배제되어 있는 대중들의 저항적 공간들을 함께 읽어내는 것, “담론의 공간성(discursive space)”(p. 46)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푸코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세르토(1980/1984)가 주목한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micro stories)에 대해 살펴보자. 세르토에 따르면 도심의 마천루에 비견되는 전지전능한 시점의 묘사, 소문 등은 푸코가 지목한 근대의 파놉티콘적인 총체적 담론을 형성하고 근대의 타자들을 대상화하며 감시하며,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총체화 된 듯 보이는 담론의 저변에는 역설적으로 복수의 작은 이야기들(micro-stories)이 존재한다. 때로 이야기는 담론에 포섭되어

2) “주술의 매개체로부터 태어난 장소는 일시적이고 단단하지 못하므로 대지(大地)에 등록되어야 한다. 장소는 어떤 무대 위에서 형체를 얻었다. 장소는 어떤 언어 속에서 실체성을 얻는다”(Certeau, 1970/2013, p. 65).

단일한 목소리로 변질되고 미는 거대서사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타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잠재적 “토대이자 극장”(p. 124)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상 세르토의 논의를 식민지 근대 신여성의 텍스트에 적용해 보자. <여자계>³⁾에 실렸던 신여성 나혜석의 소설 <경희>에는 ‘신여성이 가사 일에는 능숙하지 못하다’는 세간의 소문과 달리 가사 일을 즐겁게 해내는 ‘경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문학서사는 가부장적 담론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당대 신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선택의 하나일 수 있다. “경희에게 요리는 주체성의 기호로,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봉건성의 기호로 이해된다”(이경, 2004, 139쪽). 경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 여성들의 작은 이야기는 유교적 담론이라는 합법적 장소와 신여성의 가사라는 타자들의 공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 이 같은 글쓰기는 신여성에 대한 당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을 넘어 구여성과 대비되면서 문밖의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담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신여성의 공간을 문 안으로 넓히는 텍스트적 실천이다. 문학이라는 입구를 통한 “서사는 과학적 담론의 일부인 양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간다”(Certeau, 1980/1984, p. 78).

또 다른 사례를 푸코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에 적용해서 살펴보자. <신여성>과 같은 잡지 기고란은 당대 동경에 유학하고 온 인텔리 신여성들로 알려졌던 유명인사들의 글 뿐 아니라 평범한 독자들의 편지, 기행문 등의 글이 실리는 공간이기도 했는데 당시 별건곤(1927년 4월)에 실렸던 ‘기차 통학’이라는 글에는 경성에 있는 근대 여학교에 통학하는 인천 여학생의 통학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서경석·우미영, 2007). 주지하다시피 푸코적 시각에서 학교는 근대적인 현모양처를 훈육하는 제도적 장소이다. 그런데 신여성에 실린 여학생의 통학기는 당시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근대적 교육을 받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 즉 ‘장소(the place)’로서의 의미보다는 외출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정으로서의 ‘공간(space)’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로 나서는 여학생에게 기차는 자본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한 제국의 도구가 아니라 근대적 삶을 향한 발걸음의 동반자였음을 의미한다. 1923년 11월호 신여성에 실린 글은 여학생 정애에게 원숙(수학 여행)이 갖는 의미가 학교 교육이 제공하는 근대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외출 그 자체였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근대 여성의 공식적인 첫 외출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학생’이 됨으로써 비로소

3) 일본 도쿄의 여자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여자계>는 신여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잡지로 1917년 12월에 창간되고 1920년 6월 종간되었다.

그의 외출은 일상이 될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 가야 할 목적지 또한 분명해졌다...기차로 통학하는 여학생.. 그들이 기차를 타고 오고 간 통학 길은 근대적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다.....여학생 정애에게는 이번 원족이 집과 학교를 벗어난 바깥 세계로의 외출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바깥 세상의 풍경이다. 하늘 빛, 들판의 곡식, 새 소리, 관악산 초록의 빛깔 들이 바로 그것이다(서경석·우미영, 2007, 18-26쪽)

물론 근대 미디어의 서사에는 문 밖으로 나선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위협의 서사 역시 존재했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선생의 유혹에 빠져 몸을 망치거나 여학생 운동선수가 코치의 희롱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했다는 수난의 고백서”(이회경 등, 2005, 25-26쪽)가 그것이었다. 이처럼 푸코의 작업이 학교, 공장, 병원과 같은 근대의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하는 지배적 서사, 담론에 관한 것이라면, 세르토(1980/1984)의 작업은 이들 지배적인 서사와 서사를 양산해내는 장소들을 우회하고 서성이는 대중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들 담론적 장소가 어떻게 회피되고, 전유되는가를 읽는 작업이었다.

세르토의 시각에서 지배적 담론의 총체성을 무력화시키는 타자들의 작은 이야기가 갖는 미디어 텍스트의 다원성이야말로 미디어 문화가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대중이라는 일상 속 주체들의 역사일 것이다. 이처럼 당시 남성필진에 의해 발간되고 유포된 여성잡지와 같은 미디어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공적 생활의 문법”(이회경 등, 2005, 16쪽)이 작동하는 파놉티콘적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타자들의 텍스트가 인용되고, 가부장적 담론이 전유되는 실천적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세르토적 미디어 읽기 방식일 것이다. 미디어의 독자들은 근대적 미디어 텍스트들을 오가며 이를 밀렵하고 발화하는 존재인 것이다. “계급차, 성차를 확정짓는 체계인 동시에 그로부터의 일탈을 도모하는 기호”(이경, 2004, 144쪽)인 음식에 대한 근대 여성잡지들의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⁴⁾ 당시 미디어는 지배적 담론의 체계이자 이에 저항하는 타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세르토(1980/1984)에 따르면 대중들이 TV, 신문, 잡지, 광고 등 미디어의 상업적 담론들을 읽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순응적이고 침묵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들의 읽기 행위는 미디어 텍스트라는 “아파트를 빌려”(p. xxxi) 자신의 공간으로 전유하는 게릴라적

4) 1920, 30년대 미디어에서 음식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서열과 배제의 기호”(이경, 2004, 133쪽)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부역의 개량, 서구적 식사문화(식탁, 외식)의 도입 등을 통해 대접하는자(여성)/대접받는자(남성)이라는 이항대립적인 가부장적 경계의 일탈을 도모하는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문영희, 2004)

전술이 발휘된 결과이다. 바르트(Barthes)가 스탕달을 통해 프루스트를 읽어낸 것처럼 미디어 텍스트 사이를 표류하는 대중들의 눈은 저자의 텍스트를 고정된 의미로 수용하지 않고 속독하여 읽고 이에 대해 발화하는 능동적인 언어적 행위를 통해 텍스트를 독자의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당시 신여성의 독자 투고란에 잡지에 대한 독자들의 직접적인 견해가 실리기도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자신을 무식쟁이 부인”, “참으로 이름 없는 일 여성”, 심지어 “무식한 구녀성”이라고 일컫는 이 여성들은 잡지 신여성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면서도 한편 도시의 유한계층만을 위한 잡지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신여성에 실린 내용이 자신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 비판의 요지였다(김수진, 2009. 212쪽).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여성의 대중적 인기를 과시하기 위한 타자들의 목소리 인용은 담론 강화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타자들의 발화를 통해 지배적 담론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잡지 신여성은 신여성들에 대한 연애, 약혼, 이혼 등 사적인 영역들에 대한 소문과 루머가 양산되는 담론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나혜석, 최승희, 이정희 등 신여성들의 반박문이 게재되었던 저항적 발화 행위의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이윤미, 2004).

이상 살펴보았듯이 당시 식민지 근대 여성들에게 〈신여성〉이라는 잡지는 수동적으로 읽고 소비하는 상업적 매개물 혹은 안과 밖, 학교와 길, 신여성과 구여성을 구별하는 제도적 담론이 작동하는 장소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잡지 〈신여성〉은 자신들을 문밖의 여인들로 간주해 온 가부장적인 시선에 저항해 가정 내 신여성의 활동공간을 구현해내고, 학교라는 제도적 장소로 향하는 길을 해방과 일탈의 공간들로 구현해내는 창의적인 여성 필자와 독자들의 공간이었다. 또한 적극적인 발화를 통해 잡지의 내용에 일침을 가함으로써 당시 신여성 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식민지 근대 여성들의 비평적 활동 공간이었다.

식민지 근대 상업적 담론인 광고 속 뽀족 구두를 신은 신여성의 다리가 분절화되고 성애화(김지연·김균, 2015)된 반면 여학생, 여급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신분의 획득을 통해 거리를 활보했던 일군의 신여성들의 다리는 그녀들의 일상 속 구어, 수필 속에서 문밖으로 나서는 힘찬 발걸음으로 묘사된다. 세르토에게 미디어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성 등 근대의 지배적 담론들의 흔적이자 이들 담론적 장소를 서성이는 신여성들의 잠재적인 저항적 공간이다. 요컨대 미디어 텍스트는 ‘결코 미디어에 쓰여진 텍스트 위에 머물지 않는다’. 미디어 텍스트는 이를 재전유하여 읽고, 발화하면서 텍스트가 구획 지은 사회적 행위공간을 서성이며 횡단하는 독자들의 공간인 것이다. 세르토(1980/1984)의 지적처럼 그리스어로 이야기를 의미하는 은유(metaporai)가 “탈것(transportation)과 동의어”(p. 115)인 것은 이야기의 본성이 고정된 장소를 넘나드는 독자들의 횡단성인 것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부르디외를 넘어: 행위의 텍스트성

푸코에 대한 세르토(1980/1984)의 비판이 담론(텍스트)에 대한 위로부터의 편향된 시각에 관한 것이었다면, 부르디외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은 실천(행위)에 대한 위로부터의 편향된 시각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르토의 실천이론의 중심에는 실천에 관한 부르디외의 이론이 자리잡고 있다. 쉬라토와 웹(Schirato & Webb, 1999)은 세르토의 작업에 푸코가 미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세르토의 작업과 더욱 많은 상동성을 보이는 학자는 부르디외(Bourdieu)라고 말한다(p. 3). 세르토와 부르디외 작업의 동형성은 푸코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세르토는 사회적 가능성에 위치시켜야 하는 주체를 언어적 가능성에 국한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오류(Bourdieu, 1979/1984)라고 비판한 부르디외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부르디외의 실천 개념 역시 평범한 행위자들의 저항적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권력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르토(1980/1984)가 비판했던 핵심적인 개념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이었다⁵⁾. 개인의 실천반경을 결정짓는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지, 감지,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무의식적 성향체계(Bourdieu, 1979/2006)로 부르디외는 개인이 아비투스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역사적 조건과 또한 앞으로 살아갈 조건에서 생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르토는 알제리 카빌리 주민의 혼인전략과 같이 오래된 사회적 관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체계인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유형에서 가능한 정태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아비투스가 주어진 역사적 조건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무의식적 이해타산이 반영된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향이 물질적 조건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홍성민, 2006, 226-227쪽)으로 지배 시스템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 부르디외를 비판한 세르토의 요지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합법적 공간인 아비투스에 위치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에게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게릴라적 전술의 공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 세르토는 어떻게 특정 사회의 오래된 관행에 대한 분석을 근대

5)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를 생산적으로 수용했던 부르디외에게 자본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문화, 학력, 사회 자본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부르디외의 자본은 “사회적 경쟁에서 개인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최종철, 1979/2006, 13쪽)이다.

6) 세르토(1980/1984)가 〈일상생활의 실천〉에서 제기하는 개념인 전략과 전술은 장소와 공간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전략이 공적인 제도적 장(소)에서의 이해관계를 감안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실천이라면 전술은 제도적 장소를 우회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저항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사회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어떻게 굳어진 아비투스에 대해 개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이 갖는 정태성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에 내재된 잠재된 에너지인 자본이 행사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장소, '장'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부르디외의 장 역시 푸코의 학교, 감옥, 병원과 같은 제도적 장소들처럼 "생산의 장이며 공적 장이기 때문에 여성과 같은 하위주체들은 장의 게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이상길, 2000, 14쪽). 또한 장은 행위자들의 이해와 계산이 작동하는 합법적인 장소이기에 여기서 위치하며 이익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아비투스를 가진 행위자들에게 장의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일탈적 공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르토의 요지였다. 이에 세르토는 사회적 타자들이 자신의 아비투스 와 아비투스가 실천되는 공적이며 제도적 장소인 장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정말 없는지 반문한다.

세르토(1980/1984)는 이들 타자들의 공간을 학력, 문화, 정치라는 제도적 장이 결집된 근대성의 신화적 공간, 계획도시를 서성이는 대중들의 걷기, 보행 공간을 통해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대중, 타자들은 비록 마천루의 파놉티콘적인 시선 아래에 위치하지만 미디어 텍스트를 천천히 숙독하는 독자들처럼 근대의 시각적 스펙터클 주변부를 "어슬렁(idle steps)"(p. 97) 대면서 이들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판적 "관찰자(observer)"(p. 67)가 된다. <일상생활의 실천>(1980/1984)에서 묘사되는 근대의 타자들은 화려한 도심의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니라 도심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창의적 산책자, 독자가 된다. 푸코에 대한 비판을 통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에서 이를 읽고, 발화하고 전유하는 행위의 공간을 발견했듯이 세르토는 거리를 배회하는 산책자의 걷기라는 행위 속에서 저항적인 텍스트의 수사학(rhetoric)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전략이 집약된 총체화 되고 신비화된 거점"으로써 "도시를 이상화하는 담론의 저변"에는 이들 권력을 이용하고 전유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도심의 실천들(urban practice)"(Certeau, 1980/1984, p. 95)이 존재한다. 걷기, 배회하기, 쇼핑 등의 행위를 통해 도심의 공간들을 배회하고 전유하는 만보객들은 이 같은 "걷기의 수사(a rhetoric of walking)"라는 "궤적을 통해 말한다"(Certeau, 1980/1984, p. 99). "대중들의 서성거림은(wandering of the sematic)는 도시의 일부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과장되게 만들며, 과편화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Certeau, 1980/1984, p. 102) 저항적 수사이다. 대도시라는 어머니에게서 분리되고 싶은 아이처럼 도시의 이방인은 근대 도시가 잃혀지기를 요구하는 꼭 짜여진 담론을 거부한다.

식민지 근대의 거리에서 일본식 히사시가미 머리에 조선의 개량 통치마를 입은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신여성들은 여학생인지, 기생인지, 여급인지, 아니면 유학과 인텔리겐차 신여성인지 그 아비투스적 정체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도시의 산책자였다(권보드래, 2003). 실제로 신여성이 누구였는지 계급과 계층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리고 이들을 양산한 잡지 신여성의 담론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근대 신여성은 과잉된 존재였다는 지적(김수진, 2009)에도 불구하고 세르토적 시각에서 신여성과 같은 타자들은 실제 사회에서 차지한 사회학적 통계학적 계층적 분포, 아비투스를 통해 그들을 단정할 수 없다. 신여성은 여학생, 여급, 인텔리겐차라는 계급적, 계층적 구분에 앞서 자신들 간 계급적, 계층적 차이를 무화시키기 위해 골방 밖으로 나와 근대가 선사한 새로운 공적 공간, 거리를 산책했던 일군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학생을 모방한 기생, 기생을 모방한 여학생이 그러했듯이 트레머리에 구두를 신고 수수한 빛깔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선 식민지 여성의 “가벌”(장세룡, 2016, 42쪽)과 같은 옷차림은 이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며, 이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아비투스였다(권보드래, 2003).

트레머리에 구두를 신고 수수한 빛깔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선다면 기생 신분을 남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기생들은 방석감 옷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감탄의 시선 또한 모았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걸쳤다.

단정하게 빗어 기름 발라 붙이고 비녀와 뒤통이로 장식한 쪽머리 대신 서양식 트레머리로 거리고 나섰다...기생이 여학생을 모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여학생이 기생을 모방한 일도 없지 않았다(권보드래, 2003, 33쪽-36쪽).

잡것과 순수를 구별하고자 한 가부장적 담론에 따르면 이들의 몸은 근대의 제도적 규율이 작동한 흔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들 흔적을 지우려고 한 타자들의 저항적 흔적이 혼종된 경계의 몸이다. 기생, 여학생, 카페여급 등 다양한 신여성들의 몸과 이들 몸이 실천된 행위의 수사는 가부장적 담론이 욕망했듯이 남성을 위한 경쟁(이희경 등, 2005)이 아닌, 도시라는 근대의 텍스트를 점유하기 위한 경쟁의 서사였을 수 있다. 거리를 중심으로 벌여졌던 여학생과 기생의 거리 쟁탈전은 이들이 거리의 경쟁자이자 “이웃(neighborhood)”(Certeau, Giard, & Mayol, 1990/1998, p. 35)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끈한 외양을 가진 근대의 거리에 움푹 패인 상처를 입히고 도시의 가부장적 담론에 균열을 가하고자 했던(Certeau & Giard & Mayol, 1990/1998) 신여성들의 옷차림, 걷기 등 말없는 저항적 수사들은 근대역사의 내러티브를 구성

하는 대중들의 행위텍스트인 것이다.

김진송(1999)의 말처럼 모던 보이가 대개 자본을 소유한 지배계층의 아들이었다면 모던 걸들은 “현대적인 사고와 실천이 봉건이라는 거주장스러운 제약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풀어 주리라고 믿었던”(222쪽)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들 여성들의 근대 도시 속 공간들은 근대와 전통의 경계와 균열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던 치열한 전술적 몸짓은 아니었을까? “근대적인 자아의 각성은 근대적인 물질적 토대와 분리될 수 없었으며”(임옥희, 2004, 244쪽)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바꿔낼 실질적 권력이 없었던 신여성들의 몸을 이를 통해 현실에 저항하고자 한 정치적 행위의 텍스트일 수 있다(임옥희, 2004).

여우목도리를 두른 채 거리를 걷는 모던걸에 대한 비판적 풍자를 담은 만문만화(신명직, 200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종전에 남성 산보객의 전유물(collie, 2013)이었던 거리에 신여성들이 나섰던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서지영, 2013). 근대화 함께 새롭게 탄생한 학교, 병원, 공장 등의 근대적 장소들이 여성을 근대적인 규율과 훈육체계에 순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소였는데 반해(문영희, 2004), 이들을 안내하는 익숙한 표지판(Cronin, 2006), 광고가 유혹하는 식민지 근대의 거리는 이들 근대적 몸이 전시되면서도 여성이라는 젠더적 억압을 벗어나 스스로를 근대인으로서 각성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역설적인 공간일 수 있다. “여성 소비자를 물신주의적이고 성애적으로 병리화 하는 남성관찰자의 시선 이면에 여성들의 욕망을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의 매커니즘이 자리하고 있음”(테보라 퍼슨즈, 2000, p. 49; 서지영, 2013, 재인용)은 분명하지만, 이들 매커니즘을 이용하고 전유하는 여성의 행위 전술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테혜숙(2004)은 “남성중심의 공간 전략에 맞서는 여성의 탈 식민 욕망이 저항적 차이의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근대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작업”(31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텍스트와 행위의 경계를 넘어 이들 타자들의 저항적 공간들을 읽어낸 세르토의 작업은 식민지 근대 “도시의 유령(Ghost in the City)”(Certeau, Giard, & Mayol, 1990/1998, p. 133)과 같은 존재, 신여성과 같은 “아스팔트의 딸”(이선희, 다당여인(茶黨女人); 서지영, 2013, 50쪽, 재인용)들이 어떤 전술들로 나름의 역사를 구성하고자 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미디어 문화사의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푸코와 부르디외의 비판을 통해 언어와 비언어적 경계를 무화시키는 세르토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주체 대 타자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미디어 문화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걸기, 입기, 살기, 혹은 요리하기와 같은 말없는 역사는 부재한 (것으로 보였던) 이웃들의 존재를 드러 낸다: 이들 역사는 현재 부재한 추억들을 거슬러 간다...이것이 바로 도시의 서사이다. 도시의 서사는 카페, 사무실, 빌딩과 같은 다양한 장소들을 침투해 들어간다.

Calvino가 썼듯이 이들은 가시적인 도시들에 이들 “비가시적인 도시들(invisible cities)”을 더 한다(Certeau, Giard, & Mayol, 1990/1998, p. 142).

4.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의 문화사를 향하여

꽤 오랜 동안 텍스트(언어)와 행위(몸)이라는 대상은 역사학에서 이항대립적인 경계에 놓인 것으로 다뤄져 왔다. 지배자들의 펜 뒤에 낫을 들고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타자들의 역사를 발굴하는 관행이었다. 언어적 전환과 함께 등장한 푸코와 부르디외 등의 작업은 텍스트와 행위는 철저히 분리될 수 없는 것,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생산된 담론과 행위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지만, 담론(텍스트)과 아비투스(행위)는 여전히 근대의 지배적 권력이 남긴 위로부터 아래로의 흔적이었다. 이에 반해 텍스트 속에서 타자들의 행위의 공간을 발견하고 행위 속에서 타자들의 텍스트적 수사를 발견하려는 세르토의 요구는 텍스트와 몸이라는 인식론적 경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타자들의 역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나아가, 텍스트와 행위라는 사료를 어떻게 접합 시킬 것인가에 관한 미디어 문화사기들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인용, 읽기, 쓰기, 발화 등을 통해 텍스트 속에서 행위하고, 걷고, 입고, 요리하고, 쇼핑하는 일상적 행위의 궤도를 통해 정치적 발화를 서슴지 않는 식민지 근대 조선의 신여성은 역사의 “우연적 시간(casual time)”을 통해 제국의 신화적 도시에 “찰과상(scrap)”을 입히는 존재이다(Certeau, 1980/1984, 202-203). 1920-30년대 <개벽>, <신여성>, <조선일보> 기자이자 소설가였던 이선희의 글은 “도시의 틈새(in-betweenness)”(서지영, 2013, 5쪽)에서 방황하며 서성이는 여성 산책자를 보여준다. 아래 만문(별건곤, 1934. 1)에서 자신을 아스팔트의 딸이고 도회의 딸이라고 일컫는 식민지 근대 조선 신여성에게 근대의 거리는 성적 계급적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교란의 메타포로 작동하는 틈새의 공간이다.

떼파트 쇼-윈도의 활활한 색채가 나를 유혹하고 울트라 모-던니즘을 숭배하는 젊은 남녀의 야릇한 차림새가 내 호기심을 끈다. 거리로 나가거라. 입술을 빨갱게 물들이고 눈썹을 기늘게 그

리고 링크를 사방으로 보내며 레뷰-식으로 깡충깡충 걸어라. 단연이 값싼 모-더니즘의 여왕이 될 테니. 나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하기는 아마 조선의 여성이 다 이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변(變)으로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내 가슴은 허영과 향락으로 차 있지 않은가. 나는 도회의 딸이다. 아스팔트의 딸이다(이선희, 다당여인〈茶黨女人〉; 서지영, 2013, 50쪽, 재인용).

이선희의 다른 소설 〈가등〉의 주인공 명희는 가부장적인 연인에게 실망한 채 종로를 서성이면서 식민지 근대 도시의 스펙터클을 재음미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보여지듯이 평소의 화려함과 달리 쓸쓸한 거리에서 명희는 식민지 거리가 제공하는 스펙터클의 환영과 자신의 현실과의 괴리감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 거리를 배회하다 백화점에 이른 명희는 백화점을 순례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몸 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여기면서 평소처럼 자기 주체적인 발걸음을 옮긴다. 도시와 남성의 가부장적 시선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미끈하고 훌륭한 외모의 모던보이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던지고, 도시의 유행 스타일을 잠시나마 음미하면서 주인공 명희는 여전히 도시의 경계를 서성인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이, “사람도 없는 거리를 방향도 없이” 배회하는 여성의 거리에 대한 신여성의 텍스트는 “가부장적 권습과 불화하는 여성의 존재 방식”(서지영, 2013, 55쪽)을 보여주는 저항적 텍스트이자 여성의 저항적인 실천 배경을 제시하는 행위의 공간인 것이다.

가끔 백화점 순례에 충실한 명희는 발을 옮겨 본정을 돌아, 어느 백화점 가-다란 층계를 밟는다. 그는 어쩐지 ‘엘레베이터에 몸을 실는 것은 거의 바보에 가까운 짓이라 하여 언제든지 이것을 피한다. 마침 일요일 오후라 사람의 덩어리가 이곳저곳에 밀린다. 사람이 유난히 많이 모여 떠들썩하는 곳에 가면 또 유난히 고독을 느끼는 명희는 오늘은 거의 견딜 수 없으리만치 외롭다. 두리번 두리번 살핀다. 미끈하고 훌륭한 남자의 모양이 자기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명희는 그가 아닌가 하고 힐끗 쳐다보았다... 몹시 야릇한 심사를 안고 사층 화장실에 들어가니 젊은 사람 서넛이 화장을 고치느라고 자못 망아상태다. 가늘고 긴 눈썹이 없어지고 약간 검고 굵은 눈썹이 지금의 유행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다. 실로 그 관찰 시간은 삼십초! (이선희, 가등〈街燈〉; 서지영, 2013, 53쪽 재인용)

“자본주의적 영토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공간의 생산을 의미한다”(테혜숙, 2004, 25쪽). 근대적 잡지, 거리와 같이 근대적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공간들은 식민지 자본이 자신의 상업적

이해를 위해 기획한 전략적 장소였지만, 동시에 식민지 근대 여성들과 같은 타자들에 의해 이용된 전술적인 브리콜라주의 공간이었다. 식민지 근대라는 급격한 역사의 변혁기에서 민족주의, 계몽주의 등 거대한 주의 주장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결국 배반당할 수밖에 없었던(김지연·김균, 2015) 식민지 근대 여성들이 사치, 허영 덩어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가두 생활”(적라산인, 1930; 김정일, 2002, 232쪽, 재인용)과 같은 모던 생활을 선택하면서 거리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연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필연적인 경계 넘기 전략이었다.

우리의 근대를 대중들의 눈으로 재 조명해보고자 하는 문화사가라면 이처럼 자신들을 배제하고 경계 지었던 텍스트와 행위의 제도적 장소를 서성이고, 가로지르며, 넘나드는 신여성과 같은 타자이자 주체들의 텍스트와 행위, 그 중층적인 실천은 무엇이었는지 브리콜라주적(bricolage)으로 살펴보면 횡단하는 세르토적 작업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위로부터 아래로 향해 온 권력의 일방향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텍스트와 행위라는 인식론적 대립항의 상쇄를 주장한 세르토의 작업은 그동안 미디어 문화사의 타자로 오인되어 온 ‘대중’이라는 주체를 발견해내는 유용한 이론적 전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르토의 시도는 대문자 주체, “동일자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하고 강화하는 ‘동어반복의 담론(tautologie)’이 아니라, 동일자의 친숙한 공간 속으로 타자성을 끌어들이고 정체성에 관한 지식을 변화시키는 ‘헤테롤로지(hétérologie)’의 지평”(이상길, 2014, 81쪽)을 펼치는 것이다. 기생, 여학생, 여급 등 신여성들을 미디어 담론에 따라 계층적 계급적으로 경계 짓고 범주화하던 관행을 넘어 이들을 텍스트와 실천의 경계에 놓여 있던 주체들로 재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타자들을 주체화하는 역사, 진정한 문화사적 전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나이가 이상의 시각에서라면 역사 속 타자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급진적인 질문 역시 가능하다. 세르토가 타자의 역사학을 타자학이 아닌 이종(異種)학이라고 부른 것은 끊임없는 과거 텍스트와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김기봉, 1998) 기성의 역사학에서 타자의 자리로 간주되어 온 주체들, 대중의 자리를 오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은 아니었을까? “역사는 결코 확실한 법이 없다”(Certeau, 1973/2013, p. 8)는 세르토의 철학은 확실성의 역사, 대문자 주체들의 역사 발굴 관행을 넘어 소문자 주체들의 역사를 재 발굴하고자 하는 문화사의 기획에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진송(1999)의 지적처럼 우리사회가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급격한 길목에서 일상 속 근대의 경험이 담긴 사료는 무엇보다도 신여성과 같은 대중들,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대중문화일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의 계기 속에서 가장 극심한 주체성의 변화를 경험했던 신여성과 같은 대중적 주체들이 미디어와 일상 공간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존재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는

지 살펴본 본 논문의 작업이 향후 역사 속 주체로서 대중들의 자리를 발견해내는 문화사의 실천적인 방향성이 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권보드래 (2003). 〈연애의 시대〉.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경연 (2010). 근대 여성 잡지와 여성 독자의 형성: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4집, 137-174.
- 김경일 (2002).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19호, 227-262.
- 김기봉 (1998).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과 신문화사: 오늘의 역사학〉. 서울: 한겨레 신문사.
-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서울: 소명출판.
- 김옥영 (2003). 1920-30년대 한국 여성잡지의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 '신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호, 175-202.
- 김용화 (2012). 근대상품광고로 본 신(新) 소비문화와 신여성. 〈동국사학〉, 52권, 157-197.
- 김지연·김균 (2015). 식민지 근대 신여성의 담론 연구: 1920-1930년대 한국의 신여성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7권 4호, 194-226.
- 김진송 (1999).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마정미·강태완 (2005). 〈근대광고 논증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 주체구성: 1920-30년대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추계학술대회.
- 문영희 (2004). 민족의 알레고리로서 음식과 사적 노동공간. 테헤산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163-188쪽). 서울: 여이연.
- 서경석·우미영 (2007). 〈신여성 길위에 서다〉. 서울: 호미
- 서범석·원용진·강태완·마정미 (2004). 근대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대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대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권 1호, 227-266.
- 서범석·원용진·정과리·강태완·마정미·김동식·이병주 (2006). 〈근대적 육체와 일상의 발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지영 (2006).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22권 3호, 199-228.
- 서지영 (2008). 민족과 제국 '사이': 식민지 조선 신여성의 근대. 〈한국학연구〉, 29호, 169-202.
- 서지영 (2010). 산책, 응시, 젠더: 1920-30년대 '여성산책자'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219-259.
- 서지영 (2013).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경성의 모던걸〉. 서울: 여이연.
- 신명직 (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 유선영·박용규·이상길 (2007).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윤영옥 (2005).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신여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0권, 201-224.
- 이경 (2004). 근대의 타자들: 음식기호를 통해 본 몸과 일상의 서사. 테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130-162쪽). 서울: 여이연.
- 이명선 (2003).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권 2호, 5-37.
- 이병주·마정미 (2006). 초기 근대 의약품 광고 담론분석: 근대적 아픔의 주체와 경험에 대한 소고. <한국언론정보학보>, 32호, 243-292.
- 이상길 (2000). 문화생산과 지배: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사회>, 9권 1호, 7-46쪽.
- 이상길 (2005).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사'를 위하여: 연구방법론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106-161.
- 이상길 (2008). '미디어 사회문화사-하나의 연구 프로그램'. <미디어, 젠더 & 문화>, 9호, 5-50.
- 이상길 (2014). 미시권력 대 미시저항: 부르디외와 세르토. <인문예술잡지F>, 13호, 19-103.
- 이윤미 (2004). 근대적인 교육공간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테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299-313쪽). 서울: 여이연.
- 이은경 (2004). 광고/자살/능욕의 모성공간. 테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109-129쪽). 서울: 여이연.
- 이정우 (1993). 푸코 사상의 여정.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57-179) 서울: 새길
- 이혜진 (2014). 신여성의 근대적 글쓰기: 『여자계』의 여성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55집, 1-26.
- 이희경·김명임·김민숙·김연숙·문경연·박지영·손유경·전미경·허보운 (2005).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서울: 한겨레 신문사
- 임상우 (2001). 역사학에서의 문화적 전환: 신문회사 대두의 사학사적 검토. <서강인문논총>, 14집, 205-227.
- 임옥희 (2004). 복장의 정치학과 식민지 여성의 소비공간. 테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243-272쪽). 서울: 여이연.
- 임우경 (2004). 식민지 여성과 민족/국가 상상. 테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41-77쪽). 서울: 여이연.
- 장세룡 (2003).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프랑스사 연구>, 9호, 147-178.
- 장세룡 (2005). 푸코와 세르토: 권력과 신비. <계명사학>, 16호, 113-140.

- 장세룡 (2016). <미셸 드 세르토, 일상 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권 4호, 47-84.
- 태혜숙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태혜숙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15-20쪽). 서울: 여이연.
- 최혜실 (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나무.
- 허 경 (2012). 미셸 푸코의 '담론' 개념: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사이. <개념과 소통>, 9호, 5-32.
- 홍성민 (2006). 아비투스스의 두 얼굴: 프랑스 지성사에서 부르디외 학문의 위상. <프랑스 문화연구>, 12집, 219-251쪽.
- Bourdieu, P. (1979). *Questions de Sociologie*. 신미경 (역) (1984). <사회학의 문제들>. 서울: 동문선.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dgement*. 최종철 (역) (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 Burke, P. (2004). *What is cultural history?*. 조한욱 (역) (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서울: 새길.
- Certeau, M. D. (1973). *La Possession de Loudun*. 이충민 (역) (2013). <루팡의 마귀들림: 근대 초 악마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 서울: 문학동네.
- Certeau, M. D. (1973). *Heterologies: Discourse on the Other*. (Brain Massumi, trans.) (1986), *Heterologies: Discourse on the Oth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erteau, M. D. (1980). *Art de faire*. (Steve Randall, trans.) (1984), *Practice of everyday life 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erteau, M. D., Giard, L. & Mayol, P. (1990). *L'invention du quotidien, II*. (Timothy J Tomasik, trans.) (199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II*.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e, C. (2013). Walking in the city: urban space, stories, and gender. *An Internet Journal for Gender Studies*, 42, 1-7.
- Cronin, A. M. (2006). Advertising and the metabolism of the city: urban space, commodity rhythm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 615-632.
- Dülmen, R. V. (2000). *Historische anthropologie: Entwicklung, probleme, aufgaben*. 최용찬 (역) (2001).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 Fiske, J. (1989).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박만준 (역) (2002).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경문사.

- Foucault, M. (1965). *Naissance de la clinique*. 홍성민 (역) (1993). <임상의학의 탄생>. 서울: 인간사랑.
- Foucault, M. (1966).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sciences humaines*. 이규현(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이정우 (역)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1993) (역).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1994) (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 McCracken, G (1988). *Culture and Consumption*. 이상률 (역) (1996). <문화와 소비>. 서울: 문예출판사.
- Oksala, J. (2007). *How to read foucault*. 홍은영 (역) (2008). <How to read 푸코>. 서울: 웅진씽크빅
- Poster, M. (1997). *Cultural history and postmodernity*. 조지형 (역) (2006).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chirato, T. & Webb, J (1999). The etics and Economies of Inquiry: Certeau, Theory, and the Art of Practice. *Diacritcs*, 29(2), 86-99.
- Schlumbohm, J. (1998). *Mikrogeschichte makrogeschichte*. In J. Schlumbohm (Eds.), 백승중 외 (역) (2001). <미시사와 거시사>. 서울: 궁리출판사.

최초 투고일 2017년 12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6월 3일

Abstract

Locating the Masses as the Subjects in the Studies of Media and Cultural History

Focusing on Michel de Certeau's *Practice of Everyday Life*

Kim Ji Ye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in Sogang University

Kim Kyun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tudies of Media Cultural History have a limitation that they have only examined 'the history from the top,' and searches f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rom the work of a historian and cultural theorist, Michel de Certeau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masses are not the Other but the subjects of history by exploring de Certeau's work which focuses on the masses' practices breaking the dichotomy between text (language) and act (body), which is detected in the works of Foucault and Bourdieu. The work of de Certeau, which discovers a space of multi-layered behaviors from text (language) as well as multi-faceted rhetorics from action (body), is a sophisticated Art of Theory, which is able to reveal that the masses are the subjects who can break the boundaries in their everyday lives, which have excluded and suppressed them, through their practices hovering around and penetrating through the boundaries. To this extent, the work of de Certeau, which rejects drawing the boundary by discovering textuality of act and activity of text, provides the studies of Media Cultural History with epistemological sources to think of how to discover the history of the Other, and how to locate the masses as the subjects of history.

Keywords: Studies of Media Cultural History, Michel de Certeau, textuality of act, activity of text